

2020년 금융정책 방향

2019. 12. 23



본 자료는 금융연구원의 2020년 주요 금융정책 방향 관련 자료로서,
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.

I. 2020년 경제 · 금융 여건

Ⅱ. 2019년 금융정책 평가

Ⅲ. 2020년 금융정책 방향

경제 여건

- ◆ 국내경제는 경기순환 측면에서 저점('17.9월 이후 경기수축국면)을 지나 **경기 회복기로 전환**
 - 재정 집행 집중(상반기), 글로벌 경기와 투자의 점진적 개선(하반기)이 성장률을 지지할 전망
- ◆ 다만,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**구조적 추세**를 반영하여 반등의 폭은 크지 않을 전망 ('19년: 1.9% → '20년: 2.2%)
 - 이에 따라 체감 경기와 실제 경기와의 괴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

경제성장률¹⁾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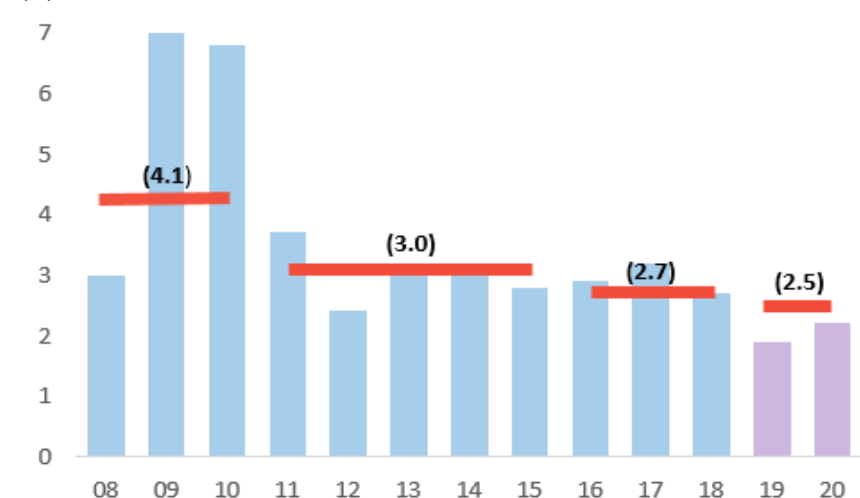
(전년동기대비, %)

	2018	2019			2020		
	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GDP	2.7	1.9	1.9	1.9	2.1	2.3	2.2
민간소비	2.8	2.0	1.7	1.8	2.0	2.2	2.1
건설투자	△4.3	△5.1	△3.8	△4.5	△3.3	△4.5	△3.9
설비투자	△2.4	△12.3	△3.0	△7.9	2.0	5.2	3.6
총수출	3.5	0.5	2.7	1.7	3.6	2.2	2.9
총수입	0.8	△2.6	0.6	△1.0	1.3	1.5	1.4

주 : 1) 2019년 하반기 이후는 금융연구원 전망치
 자료 : 한국은행, 금융연구원

잠재성장률¹⁾과 실제성장률²⁾ 차이

(%)



주 : 1) 빨간 막대선(기간중 추정치의 하한값(lower bound) 기준)
 2) 2019년 이후는 금융연구원 전망치
 자료 : 한국은행, 금융연구원

금융 여건

- ◆ 금융시장은 경기 회복cycle 진입 기대로 **위험자산 선호**가 늘어나겠지만
북 · 미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**변동성**이 확대될 가능성
- ◆ 금융산업은 **고객중심** 영업체계 구축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, **우량자산 확보**
경쟁이 심화될 전망

금융시장

- 미 · 중 관세협상 타결 등 글로벌 불확실성 축소
-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수익률곡선 평탄화 완화
- 북 · 미협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대두

금융산업

-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
- 정보 공유 등 개방적 금융인프라 구축
- 혁신금융 활성화 도모

목 차

I. 2020년 경제 • 금융 여건

II. 2019년 금융정책 평가

III. 2020년 금융정책 방향

금융 패러다임 전환 노력 지속

◆ 금융안정을 기반으로 혁신금융 및 신뢰금융 확산을 도모

금융안정 확보

- 가계부채 관리
 -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을 전 금융권 관리지표로 확대
- 상시적 · 선제적 기업구조조정
 -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

혁신금융

- 기업여신시스템 혁신
 - 미래성장성 위주 개편
- 자본시장 혁신
 -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
-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
 -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

신뢰금융

- 소비자중심 포용적 금융
 -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
- 공정성 · 투명성 강화
 - 공정경제 입법 추진

목 차

I. 2020년 경제 • 금융 여건

II. 2019년 금융정책 평가

III. 2020년 금융정책 방향

기본 방향

혁신성장 관련 금융생태계 구축

- 혁신부문 기업정보 수집·제공 강화
- 핀테크 기반 트랜잭션 banking 활성화
- 지식재산(IP) 금융투자 활성화

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 확대

- 생애주기 관점의 청년금융 기반 조성
- 고령층·장애우 금융접근성 제고
- 금융채널별 차별적 거래관행 개선

금융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지속

- 신용정보의 안전한 유통체계 마련
-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공정경쟁 여건 마련

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안정기반 확보

- 가계부채 취약계층 채무부담완화 모색
- 주력산업 혁신 과정에서의 기업구조조정 대비
- 유럽연합(EU) 벤치마크법(BMR) 승인

혁신성장 관련 금융생태계 구축

- 혁신부문 기업정보 수집 · 제공 강화 -

- 시장참가자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가 혁신기업 자금조달에 중요

- 혁신기업금융 포털 도입

: 필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거나 특정 자료 사이트로 연결하는 기능

가용정보 폭과 깊이를 확대

: 민간 상거래정보, 정부 창업지원 관련 생성정보, 정책자금 집행 정보 등을 포괄

혁신기업 신용평가 특화 CB 활성화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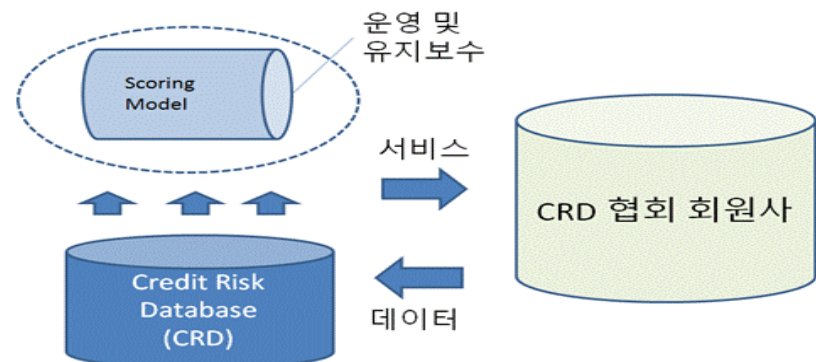
: 또는 공공금융정보 집중기관(예: 일본 중소기업 신용리스크정보 DB) 지정 검토

신용조회업(CB) 세분화

	인가단위	
현행	신용조회업 (CB업 구분 없음)	
개선	개인 CB	비금융전문CB
	개인사업자 CB	
	기업 CB	기업등급제공
		기술신용평가 정보조회업

자료: 금융위(2019)

일본 중소기업 신용리스크정보 DB (사례)



자료: ADBI(20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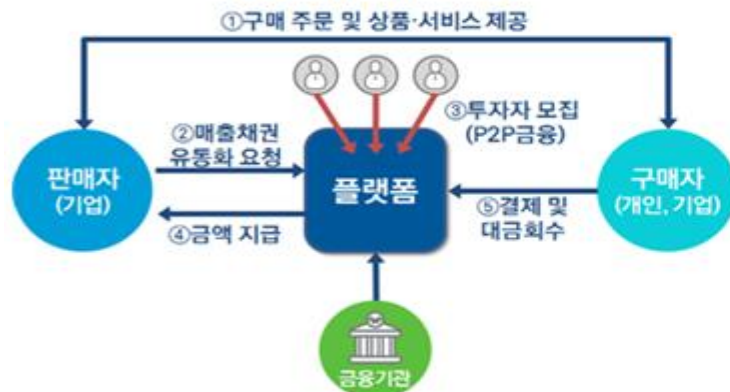
혁신성장 관련 금융생태계 구축

- 핀테크 기반 트랜잭션 बैं킹 활성화 -

- **트랜잭션 बैं킹(Transaction Banking)**은 기술혁신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
: 기업 간 상거래, 기업 및 금융회사 간 자금거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
- **플랫폼 매출망 금융(Supply Chain Finance)** 이외에 자금관리, 무역금융 등으로 확장 가능
: 사물인터넷(IoT)을 활용한 위치추적기술(플랫폼 매출망 금융), 블록체인(blockchain) 기술(무역금융)
- **트랜잭션 बैं킹 분야 핀테크 사업자 발굴**
: 필요할 경우, 트랜잭션 बैं킹에 특화된 금융업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

플랫폼 매출망 금융¹⁾(Supply Chain Finance)의 주요 형태

[P2P 기반]



[빅데이터 기반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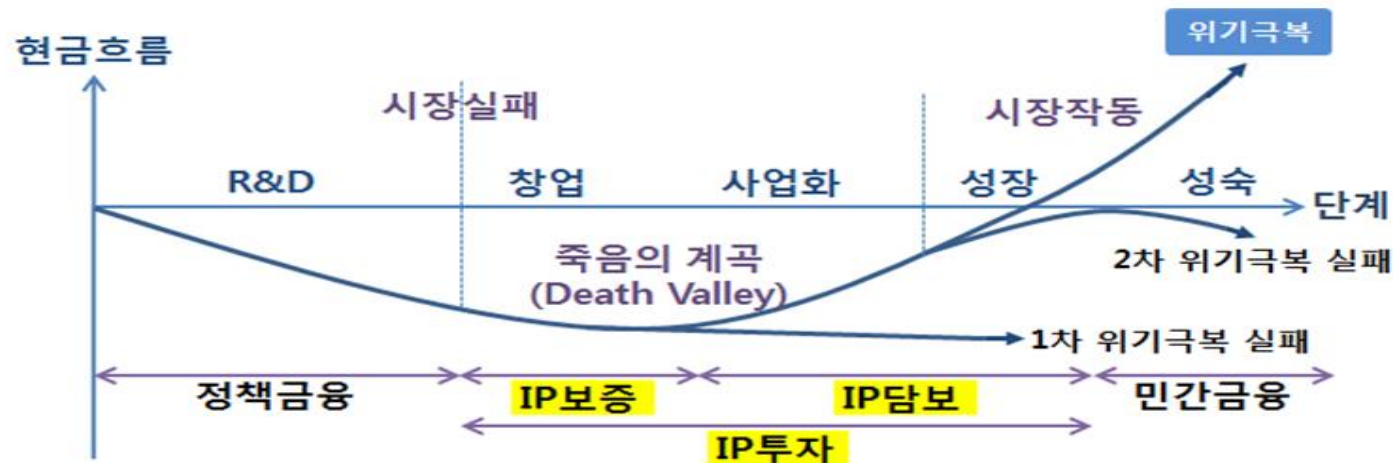
주: 1) 소상공인이 물품 등을 생산·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
자료: 기재부(2019)

혁신성장 관련 금융생태계 구축

- 지식재산(IP) 금융투자 활성화 -

- 지식재산(IP)은 창업기업의 자산임에도 이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
: 특허권 등 기술개발 직후부터 사업성 확인 이전까지 필요한 자금공급이 부족
- IP 신탁금융은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및 사업화에 유리
: 미국은 신탁회사를 통한 신약 로열티 기초 유동화증권 발행, 음원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등이 활발
: 일본은 콘텐츠 산업에서 신탁제도를 이용한 자금모집이 활성화
- **클라우드펀딩**은 대중에 의한 가치평가/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IP만을 이용한 자금조달 가능

지식재산(IP) 금융 유형별 의의



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 확대

생애주기 관점의 청년금융 기반 조성

- 특정시기 자금지원 보다는 생애주기 관점의 주거·자산 형성 관련 인센티브 제공
- 청년층 대상 주거시설 공급 관련 개발사업에 금융회사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
- 청년층 대상 예금상품에 대해 예대율 규제 또는 자본규제상 유인 제공

고령층·장애우 금융접근성 제고

- 소비자 착취(exploitation) 방지 시스템 도입*
*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금융회사가 당국에 보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 가능성(예: 사생활 침해, 정보 오·남용 등) 해소
- 맞춤형 상품(예: 의료비지출 계좌) 도입 검토*
* 미국 건강저축계좌(Health Savings Account)와 유사한 의료비 지출 대비 저축수단 제공

금융채널별 차별적 거래관행 개선

-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구와 온라인에서 은행 계좌 개설·해지 가능하도록 허용
- 고금리 특판예금의 경우 창구와 온라인에서 모두 판매
- 카드 모집*, 보험 판매**에서의 차별적 관행 해소
* 카드모집인 및 온라인
** 홈쇼핑 및 온라인

금융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지속

- 신용정보의 안전한 유통체계 마련 -

- MyData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종·대량 데이터의 안전하고 원활한 유통이 중요
- 데이터 중개기관의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
PSD(Personal Data Store) 방식
 : 본인(또는 사업자) 보관, 본인이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판단
정보은행 방식
 : 사업자 보관, 본인의 지시 또는 미리 지정한 조건하에서 사업자가 타당성을 판단하여 제3자에 데이터 제공
MyData사업자(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)의 부수업무 활용 방식
 :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를 확장하는 방안

MyData 서비스 도입에 따른 소비자 기대효과



자료: 기재부(2019)

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(금융보안원) 기대효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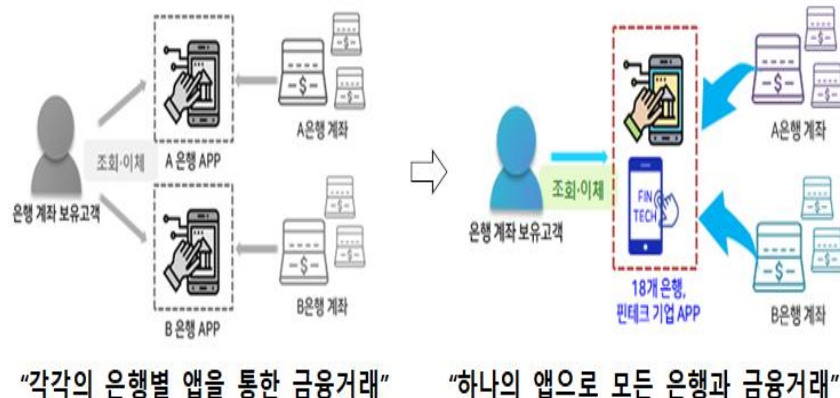
자료: 기재부(2019)

금융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지속

-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공정경쟁 여건 마련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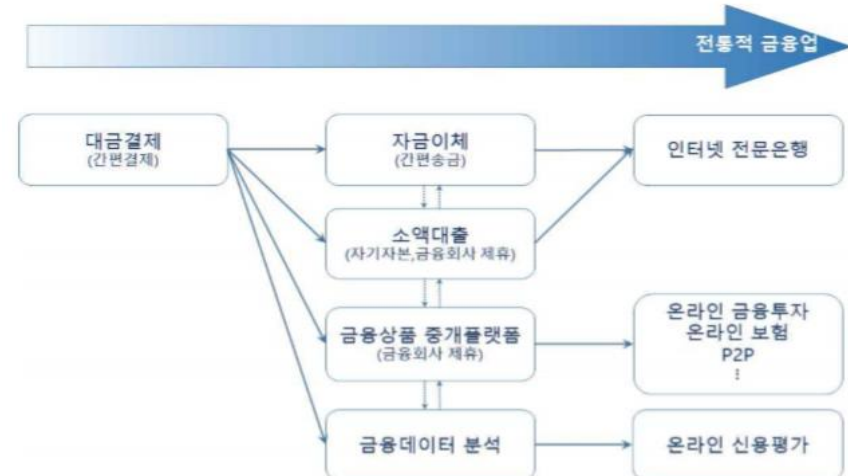
- Open Banking 등으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공유가 의무화되고 범위가 확대
- 거대 ICT기업인 BigTech*가 금융시장에서 지배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금융시장 효율성이 감소하고 시장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
 - * 비금융분야에서 형성한 광범위한 소비자 접점에 주로 기인하여 비금융 데이터, 데이터 분석능력 등에서 우위
- 금융데이터를 추가 결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금융회사의 '독점적' 우위 여부를 금융당국이 판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 확보

Open Banking 도입의 기대효과



자료: 기재부(2019)

Big Tech의 금융업 진출 양상



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안정기반 확보

가계부채 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 모색

- 소득수준에 따른 고정금리 비중 차별화, 또는 고정금리대출 세분화* 검토
 - * 혼합형 주담대의 경우 ‘고정금리 적용기간’ 또는 ‘금리변동기간’ 확대 등
- 경매유예*, 일시적인 원리금상환 유예**, 만기연장** 등을 검토
 - * 연체발생 시 경매에 들어가는 기간을 연장하여 연체가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
 - ** 소요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

주력산업 혁신 과정에서의 기업구조조정 대비

-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과정*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대비
 - * 자동차산업의 수소·전기차 위주 사업재편에 따른 중소협력업체 등
-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관행 개선*
 - * 예를 들면, 채권 은행이 구조조정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

유럽연합(EU) 벤치마크법(BMR) 승인

- 유럽연합 금융회사는 역외 제3국의 금융거래지표를 이용한 거래 시 EU 벤치마크법의 승인을 받은 지표만 이용*
 - * 국내 금융시장 금융거래지표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
- 금리지표* 이외에 환율지표**에 대한 승인 노력도 강화
 - * 은행간 호가금리 지표 개선 또는 새로운 무위험금리 지표 개발 등
 - ** 환율의 fix price(예: 기준환율)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조작 유인 억제 등

감사합니다!